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주역 강운태 광주시장

시민이 이룬 성과... 광주발전 새로운 기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멋지고 성공적인 흑자대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원해 준 광주시민에게도 감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유치발표 직전 불거진 '정부문서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단순한 실수'라고 선을 그었으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부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으며 개탄스럽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21일 수영대회 유치단을 이끌고 귀국한 강운태 시장을 김포공항에서 만나 그간의 심경을 들어봤다.

“흑자대회 위해 총력 기울이겠다” 공문서 위조 정부 이미 알고 있어

-마침내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할말이 많을 것 같다.

▲너무도 기쁘고, 모든 광주시민께 감사 드린다. 위대한 광주시민의 저력을 한데 모아 이룬 성과다. 마지막 순간에 정부문서 조작 논란과 같은 걸림돌이 있었지만 끝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광주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최종 프리젠테이션(PT) 직전에 정부문서 조작 논란이 터져나왔는데.

▲최종 PT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서류심사가 50점이라면 PT가 나머지 50점이다. 그런데 PT를 5시간 앞두고 우리 한국에서 관련 보도가 있었고 저 자신도 큰 충격을 느꼈다. (이 문제는)이미 지나간 일이고, 정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다른 날도 아닌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정부가 광주와 광주시장을 상대로 왜곡되고 음해하는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

▲FINA(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해야 하는 유치의향서 가운데 정부 보증문서를 딱딱한 공문서에서 친근한 서한문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당시 김창식 총리가 사인한 원본 서류에 일부 내용이 첨가된 것이 문제다. 하지만, 곧바로 정부에서 연락이 와 실무자의 실수임을 확인했다. 저 자신도 깜짝 놀랐고, 문관부 장관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다. 실무자의 실수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후 FINA에 전달된 2

차 서류와 최종 3차 서류는 모두 애초의 원본을 그대로 사용했다. 지난 4월 정홍원 국무총리도 광주현장을 실사하러 온 FINA 코널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다.

-그런데 왜 지금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실무진의 잘못은 있었지만 엄중 경고하고 며칠 만에 바로잡았으며 이후에는 모두 원본을 사용한 만큼 정부도 이해하고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왜, 이 시점에 (정부가)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분명 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 국무총리도 FINA실사단을 만나 정부보증문을 거듭 확인했다. 그런데 왜 중요한 PT직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태를 자행했는지 알 수가 없다. 경쟁상대인 헝가리는 총리가 장관을 대동하고 직접 PT에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검찰 수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뗏뗏이, 달게 받겠다. 하지만, 이미 실시된 국무총리실과 문관부 감사에서도 (문서조작 문제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 무혐의가 나온다면 (정부 측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서 방란도 검토중이다.

-2019년 수영대회를 어떻게 치를



강운태 광주시장의 21일 광주공항 VIP룸에서 2019세계수영선수권 유치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생각인가.

▲온갖 악조건을 무릅쓰고 승리한만큼 정말 멋지고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해나가겠다. 일부에서는 적자대회가 되지 않나 우려하는데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우선 2019년 대회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추가로 경기장 등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 건설한 수영장을 쓰면 된다. 수구 등 일부 종목의 경우 10~20억 정도만 들어 임시 수영장을 만들 생각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는 2015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부터는 마스터스 부문과 챔피언십 부문이 통합 개최된다. 오는 2019년 광주주최대회에선 26일간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선수와 스태프, 관람객 등 무려 2만여 명이 광주로 몰려들 것

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영을 통한 시민 웰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적자는 기우에 불과하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광주에서 유치한 2019 수영대회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며 결국엔 국회의 몫이다. 정부가 아니다. 앞으로 국회 국제경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9수영선수권대회 지원법'을 만들 계획이다.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법도 국회 국제경기특위에서 만들어졌다. 국회차원에서 법을 만들면 정부가 아니라 지원할 것이다. 정부가 광주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이기흥·박용성·김윤석, 꿈을 현실로

〈대한수영연맹회장〉 〈전 대한체육회장〉 〈유치위 사무총장〉

숨은 주역들

李, 국내외 오가며 지원

朴, 유치제안 전술 지도

金, U대회 이어 실무지휘



이기흥



박용성



김윤석

150만 광주시민의 꿈을 현실로 만든 숨은 주역으로 이기흥 대한수영연맹회장 겸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용성 전 대한체육회장,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등 '트라이앵글' 조직을 꾸리는 이들이 많다.

광주시가 대회 유치 초기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중국 심천, 일본 도쿄 등 세계적인 국제도시들을 제치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한 데는 이들 3인방의 찰떡 공합이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국내외를 오가며 든든한 지원군으로 후방을 적극 지원했으며, 박 전 회장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기 때마다 고도의 전술을, 김 사무총장은 실무형 야전 사령관으로 최전방에서 맹활약했다.

한국 수영계를 대표하는 이기흥 대한수영연맹회장은 유치위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정부 지원을 끌어내고 수영

을 비롯한 모든 스포츠 분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했다.

FINA 실사 당시에는 2박3일 일정을 모두 동행하며,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다. 이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서도 발언자로 직접 나서 FINA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용성 전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도전을 강시장에게 건의한 인물이다. 박 전 회장은 유치 신청 전 유치 효과를 설명하고 유치 적기임을 들어 강 시장을 설득, 유치 도전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유치과정에서도 박 전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쌓은 경

험과 풍부한 인맥이 큰 보탬이 됐다. FINA 실사 당시에는 실사단을 직접 초청, 신뢰감 구축하는데 큰 몫을 하기도 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운 뒤 'U'맨이라는 애칭이 붙은 김윤석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머물며 유치 활동을 지휘하고 전술과 전략을 짰다.

특히 홀리오 마글리오네 FINA회장을 비롯한 실제 집행위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치과정에서 강 시장과 집행위원장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징검다리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또 그가 구상한 유치신청서, 실사 프로그램, PT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지구촌 최고 수영잔치... 신기록 경쟁의 장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제수영연맹 주관 2년마다... 마스터스 포함 한달간 개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국제수영연맹(FINA)이 주관하는 국제 수영 대회로, 순위가 중요한 올림픽과 달리 세계선수권대회는 신기록 경쟁의 장이자 스타의 산실이다.

1973년 옛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고 이후 올림픽을 피해 4년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2001년 제9회 일본 후쿠오카 대회부터 2년마다 홀수 해에 치르고 있다.

2019년 광주 대회는 18회째가 된다. 아시아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2001년 후쿠오카, 2011년 중국 상하이에 이어 광주가 세 번째다.

국가별로는 호주(1991·1998년 퍼스, 2007년 멜버른)와 스페인(1986년 마드리드, 2003·2013년 바르셀로나)

이 가장 많은 세 차례씩 대회를 개최했다. 두 번 대회를 치른 도시는 퍼스, 로마(이탈리아)에 이어 올해 바르셀로나가 세 번째다.

수영세계선수권대회 종목은 크게 경영,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장거리 레이스인 오픈 워터(Open Water), 수구 등 다섯으로 나뉜다. 15회째인 올해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하이다이빙 종목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기존 다이빙 경기는 선수들이 1m·3m·10m 높이에서 떨어지며 기량을 겨뤘지만 하이다이빙은 남자 27m, 여자 20m 높이의 다이빙 타워에서 뛰어내린다.

금메달은 경영에 가장 많은 40개가 걸려 있고 다이빙 10개,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7개, 오픈워터 7개, 수구 2개, 하이다이빙 2개 등 총 66개의 금

메달을 놓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기량을 겨룬다.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부터는 매년 홀수해에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와 짝수해마다 25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모여 치르는 세계마스터스선수권대회가 통합해 개최된다. 이에 따라 대회 기간과 참가 선수 수는 훨씬 늘어났다.

세계선수권대회는 16일, 마스터스 선수권대회는 최소 10일 이상 치러 한 달 가까이 지구촌 최고의 수영 잔치가 이어지게 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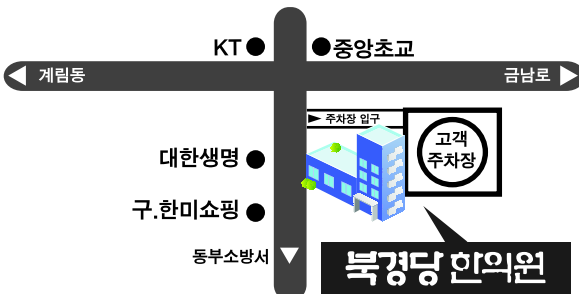
www.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전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결 제080130-금-26%로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상가대출 * 아파트대출
* 원·투룸, 나대지 대출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차량대출 * 기타대출

신 용 / 정책자금대출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2,000만원 한도
자영업자 햇살론 - 2,000만원 한도
자영업자 신용대출 · 일일상환 대출

* 직장인 햇살론 - 1,000만원 한도
직장인 신용대출 · 마이너스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한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본 점 | 공동 예술의거리 010-3603-7981
|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010-4948-2882
| 풍암지점 | 신암초등학교 앞 010-3642-6142

자연산 참돔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돔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돔음식 토종 참돔탕 / 돔 청동오리 / 돔 삼계탕
한방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춘닭백숙
삼계탕

토종참돔탕 (3인분, 식사술 포함) 40,000원
춘 닭 백 숙 38,000원

윷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웃닭 062)515-5757(웃칠웃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부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